

황금씨앗

제45호

2022년10월

명혜망: www.minghui.org



- ◆ 겨울맞이·약비(药雨)·양장(养藏)
- ◆ 명혜달력으로 맺어진 복연(福缘)
- ◆ 버려진 아기가 신동이 되다
- ◆ 고령의 임신부가 우한폐렴 악몽에서 벗어나다



CONTENTS

명혜 간행물

황금씨앗

제 45 호

명혜 간행물은
사비로 편집 인쇄합니다
읽은 후 널리 전하시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 내 고향 사람들

명혜달력으로 맺어진 복연(福緣)	3
기풍 좋은 마을의 좋은 관리	6
현판에 깃든 이야기	8
도시봉쇄로 치료가 힘들었던 아주머니가 연단묘약을 얻다	9

◆ 덕을 쌓아가는 집

버려진 아기가 신동이 되다 10

남편의 담관암이 낫다 14

◆ 세상은 넓다

고령의 임신부가 우한페렴 악몽에서 벗어나다 16

행운으로 파룬궁 만난 유립인, 녹내장이 깨끗이 낫다 18

◆ 선악인과

전 중앙 610고위직 관리 줄줄이 옥살이	20
8명 동시 교통사고에서 판이한 결과	22

◆ 옛사람의 지혜

가뭄과 억울한 옥살이 《두아원》의 계시..... 24

◆ 마음으로 알다

“아이가 당에 말려들지 않게 하겠다”..... 26



겨울맞이·약비(药雨)·양장(养藏)

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서 가을의 수확을 겨울날이로 저장합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이 지나면 바로 입동으로 겨울이 시작됩니다.

중국 고대에서 계절을 맞이함에 천자(天子)마저 공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가월령》에 “입동 날에 천자는 3공, 9경, 사대부를 인솔하여 북교에서 겨울을 맞이했다. 궁으로 돌아와서는 또 유가죽과 독거인을 보살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2022년 입동 절기는 양력 11월 7일 18시 34분에서 시작됩니다. 입동부터 소설(小雪)까지 15일간 내리는 비를 ‘약우(药雨)’라고 합니다. 대의학자 이시진은 《본초강목수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했습니다. “입동부터 10일 되는 날을 입액(入

液)이라 하고 소설까지를 출액(出液)이라 하는데, 이 기간에 내리는 비를 액우(液雨) 또는 약우(药雨)라고 한다. 벌레들은 이 약우를 마시고 모두 잠복했다가 이듬해 봄 우리가 올 때 잠에서 깨어 나온다.” “약우는 기생충들을 죽일 수 있어, 가슴과 배를 답답하게 하는 기생충을 죽이는 약으로 사용한다.”

정신을 기르고 힘을 비축하는 계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황제내경》에서 겨울 양생법은 ‘양음(养阴)’, ‘양장(养藏)’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절에는 태양의 시간에 따라 일하고 휴식해야 하는 것으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며, 추위를 피해 따뜻하게 보온하고 마음에 품은 뜻도 퍼지 말라는 것이 옛사람들의 ‘양장지도(养藏之道)’입니다.

명혜달력으로 맺어진 복연(福緣)

■ 글/ 위밍(宇明, 중국)

명혜(明慧)달력은 사진과 디자인이 아름답고 토막 이야기가 깨우침과 희망을 주기에 대중에게 인기가 많다.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사흘을 기다려 드디어 만났어요”

2021년 어느 날, 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이 큰길에서 명혜달력을 배포하고 있었다. 길가에 한 할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명혜달력을 무료로 드릴게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할머니는 그녀를 와락 껴안고 친절하게 말했다. “드디어 만나게 돼 정말 고맙네요! 며칠 전에 누군가 탁상용 달력을 들고 있는 걸 봤는데 파룬궁(수련생)이 줬다고 하더군요. 내가 달라고 하니 그는 ‘원한다면 큰길가에서 기다려보세요. 분명 누군가가 줄 겁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3일을 기다려 드디어 만난 거예요, 너무 기뻐요!” 할머니는 기꺼이 삼퇴(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에서 탈퇴)를 했다.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달력 배포를 돕다

우리 지역에는 시골로 내려가는 큰 버스가 늘 길가에 서 있다. 나는 항상 버스에 올라서 진상을 알렸고 운전기사도 삼퇴했다. 내가 버스에서 진상을 알릴 때마다 기사는 매우 기뻐하며 진상을 알리는 일을 도왔다.

2021년 선달 26일, 나는 ‘복(福)’자가 있는 한 장짜리 달력과 명혜 정기간행물 ‘천지창생(天地蒼生)’을 버스에서 배포하려 했다. 기사와 인사를 나누고 달력을 펼쳐 보이며 “차에서 선물하려고요”라고 말하자 기사는 손을 흔들며 어서 올라오라고 하더니 승객들에게 “달력이 필요한 분이 있나요? 어서 와서 가져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버스에 올라 보니 승객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차 앞에서 달력을 펼치고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무료

로 복자가 들어간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민감한 화제가 있나요?”라고 물었다. “있어요, 없으면 소중하지 않지요. 이걸 시중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구할 수 없어요. 바로 이 ‘9자진언(九字真言)’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며 진정으로 복을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나는 계속해 말했다. “이곳저곳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을 보셨죠? 사실 진정한 대 도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달력을 선물하는 것은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9자진언을 알려드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마음의 크기에 따라 그에 알맞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난관을 헤쳐나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안 통로에도 승객이 있어서 한 여성이 달력을 받아 모두에게 나눠주고 웃으면서 말했다. “다 나눠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돕는 것은 공덕이 무량합니다.”

차가 출발하려 하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말했다. “여러분께 미리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웃으면서 나에게 새해 인사를 보냈고 몸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기풍 좋은 마을의 좋은 관리

[중국 산둥성 투고] 산둥성 엔타이 지역 치사시 송산진 어느 향촌에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 마을 전 선대, 벽 등 도처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표어가 나붙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마을 기풍이 좋은 건 모두 그들 덕분입니다”

그러자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현지 ‘610 관공실’ 인원이 치보주임 류 씨(가명)를 질책하며 표어를 뜯으라고 했다. 이에 류 씨가 말했다. “저도

늘 그들을 지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걸어가면 그들이 뒤에서 불이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선인(真·善·忍)’은, 당신들이 말해보세요, 좋지 않나요?”

‘610’ 인원이 마을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으려고 하자 류 씨는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마을에 그들은 우리가 관리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기풍이 좋은 건 모두 그들 덕분입니다.” 그러나 ‘610’ 인원이 몇 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아 세뇌반에 납치 후 박해하자 류 씨는 세뇌반에 쫓아가 그들을 풀어달라고 했다.

올해 가을, 류 씨가 삼륜차로 밭에 땅콩을 캐러 가다가 비탈길에서 차가 넘어졌다. 삼륜차의 쇠 의자가 그의 발목을 덮치려 할 때 삼륜차가 갑자기 위로 들려 류 씨는 급히 발을 옮겼고 그러자 삼륜차가 다시 원래대로 굴러왔다. 이렇게 류 씨는 아무 데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촌서기 “좋은 사람을 붙잡아 어찌려구요?”

치사시에 다류자라는 향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의 촌서기 왕젠밍(가명)이 향정부와 파출소 경찰이 자기 마

을의 수련생을 붙잡으려고 하자 나서서 공정한 말을 했다. “그들이 도적도 아니고 본분을 지키며 착실히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없고 웃어른에게도 잘합니다. 좋은 사람을 붙잡아 어찌려구요?” 왕젠밍은 촌 간부이므로 하는 말에 힘이 있어 이 마을의 파룬궁 수련생이 보호됐다.

그해 왕젠밍 가족이 차를 타고 엔타이시로 갔다. 승용차가 한 다리 위를 지날 때 갑자기 작동이 안 돼 차와 탔던 사람이 다리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차는 심하게 망가졌으나 가족 일행은 다친 데 없이 무사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다

첫째: 중국 헌법 36조에서 “국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 일체 법률, 법규는 헌법과 저촉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국 공안부 통지(공통자[2000]39호, 공통자[2005]39호)에 따르면 중앙관공청, 국무원관공청, 공안부에서 공동으로 명확하게 인정한 사교조직 14가지에 파룬궁이 없었다. 이상의 사실에 대해 핸드폰으로 그 진위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 총서령 제50호》 문건에서 1999년 파룬궁 관련 서책에 관한 2가지 금지령을 폐지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파룬궁 서책을 인쇄하고 소장하는 일은 합법적이다.

현판에 깃든 이야기

글/ 진평[金凤, 중국 산시(陝西)성]

한 노년 부부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는 자주 그들 가게에서 진상을 알리며 파룬궁(法輪功)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선인(真·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다투지 말며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라고 가르치셨다고 알려드렸다. 할머니는 매우 공감했다. 나는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등 진상 자료를 드렸고 할머니는 친구와 이웃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들 가게에 들른다. 할머니가 주신 피드백은 매우 좋았는데 가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어요?”라고 묻기도 했다. 때때로 할머니가 또 내게 수건과 같은 작은 물건도 선물했으나 나는 완곡히 사양했고,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경우는 돈을 드렸다.

어느 날 내가 또 이 가게에 들렀는데 할머니가 현판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이 준 것인데 무슨 뜻인지 물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현판 글자는 ‘후덕재물(厚德載物)’이며 덕을 중히 여기고 선을 행해야만 만물을 포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알려드렸다. 할머니는 알아듣고 만족스럽게 머리를 끄덕이셨다.

할머니는 이 현판의 내력을 말했다. “어느 날 9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가게 앞에까지 왔는데 건다가 지쳐서 쉴 곳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부축해 가게로 모신 다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드렸지요. 어르신이 숨을 돌린 후 저는 택시를 불러 돈을 지불하고 집까지 모셔다드리라고 했어요. 며칠 뒤 승용차 두 대가 가게 앞에 멈추더니 젊은이 둘이 이 현판을 들고 왔어요.”

나는 할머니에게 왜 그 어르신을 그렇게 잘 대해드렸는지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당신들 대법제자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죠”라고 답했다. 나는 정말 기뻐고 대법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에 감탄했다. 생각해보자, 사회 전체가 진선인(真·善·忍)을 숭상하고 선악에는 응보가 따르는 것을 믿는다면 가짜 약, 가짜 제품, 독성 식품이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전염병도 사라질 수 있다.

도시봉쇄로 치료가 힘들었던 아주머니가 영단묘약을 얻다

[중국 투고] 2021년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슈퍼에 갔다가 중년 아주머니가 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이야기를 엿듣게 됐다. “등뼈 3개에 골 증식이 있고 류머티즘도 있습니다. 2달간 도시봉쇄로 피해가 큼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마사지도 다니고 고약 같은 것을 붙이면 좀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기간에 아무 데도 다닐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와 나는 다가가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유했다. 그녀는 공산당 입당은 하지 않았고 공청단과 소선대에 가입했다고 했다. 그녀는 공청단과 소선대 탈퇴에 동의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진언(九字真言)을 성심으로 읊으라고 당부했다.

3일 후 어머니와 함께 나갔다가 또 그 아주머니와 만났다. 그녀는 격동하며 우리에게 말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돌아가서 읊었는데 몸이 바로 좋아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큰딸과 사위에게도 골 증식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파룬따파하

오, 찌싼런하오’ 9자진언을 읊으라고 했으나 큰딸이 믿지 않으며 어디 그렇게 영험한 게 있냐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말했다. “봐봐, 어제 통증으로 허리도 못 폈는데 오늘은 이렇게 거뜰하잖니. 너는 내 딸인데 널 속일 이유가 있겠니? 정말이야.”

나는 또 아주머니에게 진상자료가 담긴 USB와 기타 진상자료를 건네며 딸에게 보여주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거듭 고맙다고 했다. 우리는 아주머니에게 “파룬따파에 감사드리세요, 대법은 사람을 구하러 전해진 것입니다”라고 알려줬다.

대법이 좋다고 믿으면 왜 복을 받을까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일념마저 천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파룬따파가 박해를 당할 때 여러분이 옳고 그름에 명백해지고 선량한 것을 지지하며,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믿는 이것은 가장 소중한 일념이므로 하늘의 보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며 선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이치의 체현입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읊는다면 위험에 봉착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관에 부딪혀 상서로움이 나타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버려진 아기가 신동이 되다



■ 회화 《성연(圣缘)》, 작가: 대법제자 (출처: 명혜망)

[중국 투고] 내가 19살이던 그 해 어느 날, 간호사이신 어머니께서 한 작은 종이박스를 품에 안고 급히 귀가하셨다. 보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주름이 쭈글쭈글한 갓난아기가 있었다. 어머니는 버려진 아기라고 하셨다. 아기에게 물 몇 모금을 먹이고는 내게 아기를 맡기고 출근하셨다. 우리는 버려진 아기에게 ‘징렌(净莲: 깨끗한 연꽃)’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줬다.

‘죽을 뻔한’ 어린 생명

어머니는 징렌의 내력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징렌의 생모는 뱃속의 아기

가 29주가 안 됐을 때 낙태를 결심하고 한 개인진료소를 찾았다. 의사는 분만촉진제를 투여했는데 태아는 덜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이 강제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징렌이 출생했을 때 다리를 몇 번 움직였지만 울지 못했다고 했다. 그 후 징렌은 태반, 핏물, 거즈 등 쓰레기와 함께 이 의료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수술실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버려졌다. 때마침 정오라 의사들은 점심을 먹고 쉬려고 나갔다.

3시간 정도 지난 뒤 쓰레기봉투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담당 의사는 아기를 차마 직접 죽이고 싶

지 않아 주임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시켜 ‘처리’하라고 했다. 그날 링거실 당직인 어머니는 의사를 따라 수술실로 가서 곧 ‘처리’ 될 아기를 한번 보고 싶었다.

대법을 수련하는 어머니가 버려진 아기를 안고 오시다

파룬따파를 수련하시는 어머니는 검은 쓰레기봉투를 열고 아기를 보니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고, 즉시 사부님께서 《전법륜(转法轮)》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살인 방화하는 것을 보고도 당신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心性(심성)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체현해 낼 수 있겠는가? 당신이 살인 방화하는 것마저 상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상관할 것인가?”

어머니는 살생의 참극을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 상관해야겠다고 생각하



징렌의 어릴 적 사진

셨다! 진료소 주임 의사의 동의를 거쳐 어머니는 소독용 보자기를 찾아 아기를 감싸 종이박스에 담아 30분 휴가를 내고 아기를 집으로 데려오셨다. 그날부터 미혼인 나는 버려진 아기의 엄마가 됐다.

당시 나와 어머니의 상황은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가정, 직장, 금전, 주택을 잃었고, 신동으로 알려졌던 나는 아버지와 학업뿐 아니라 대학의 꿈까지 잃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남방으로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막 안정이 됐지만 아직 아이를 키울 여건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기에 죽어 가는 아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버려진 아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다

경제적으로 열악해 징렌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못했다. 파상풍 주사 한 대를 놓아준 것 외에는 다른 약물을 쓰지도 않았는데 징렌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징렌은 달을 다 채웠고 체중도 2kg이 됐다. 눈 깜짝할 사이에 3개월이 된 징렌은 쌍꺼풀이 있는 큰 눈과 희고 고운 피부를 가졌는데 보는 사람마다 예뻐했다.

첫 번째로 징렌을 입양하려던 사람은 한 파룬궁수련생의 친척이었다.

장사하며 두 아들을 키우는데 딸을 갖고 싶어 했다. 그녀는 징렌이 너무 예뻐 어머니께 고생비 명목으로 몇만 위안(몇백만 원)을 주려고 했다. 어머니와 나는 징렌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몇 달이나 애를 썼다.

두 번째로 입양 의사를 밝힌 사람은 진료소 외래환자 진찰실의 주인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무튼 징렌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열 명 넘게 줄을 섰다. 나도 어머니도 승낙하지 않았다. 우리는 근무시간을 교대하면서 징렌을 돌봤다.

대법의 깨우침으로 지혜가 열리다

징렌이 한 살이던 때 나는 결혼했고 남편은 명문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이자 대법제자였다. 우리는 신앙으로 함께 모였다. 징렌이 두 살이던 해, 남편은 대법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공의 박해를 받아 감옥에 불법감금됐고, 나는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아 어머니는 우리 셋을 돌보셔야 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가장 힘든 나날을 보냈다.

징렌이 세 살 때 어머니는 보서인 《전법륜》을 읽어주어 글자를 빨리 익힐 수 있게 됐다. 징렌이 글자를 익히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는데 대법 사부님의 시집 《홍음(洪吟)》을 외울 수 있었다. 네 살 때 《전법륜》을 읽었으며 그것도 번자체로 읽었다. 엄격히

말하자면 징렌은 우리 집에 온 첫째 날부터 우리를 따라 사부님의 설법 녹음과 대법 음악, 그리고 외할머니와 엄마인 내가 법을 읽는 것을 들었다. 징렌이 이렇게 똑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엄격하게 교육한 덕분에 게임과 휴대폰을 멀리하고 오염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징렌은 독서를 가장 좋아하는데 특히 역사 이야기를 좋아했다. 사부님께서 설법 중에 하신 역사 이야기를 대부분 다 보았다. 어머니는 징렌이 살아남은 건 대법을 수련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당년의 신동 이야기

나는 대법을 수련하기 전에 소문난 신동이었다.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6살 때는 학년을 뛰어넘어 3학년이 됐고, 8살 때는 중학교에 지원해 합격했다. 그 당시 어머니의 목표는 나를 소년과학기술대학에 지원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진선인과 함께 성장했다. 파룬궁이 박해받은 후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었고 어린 나이에 세뇌반에 납치됐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꺾이지 않고 낙관적으로 견뎌냈다.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 도움과 따스함을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파룬궁은 무엇인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 부르는 파룬궁(法輪功)은 리홍쯔(李洪志) 선생이 전하는 불가(佛家)의 수련 대법으로 우주 ‘진선인(真·善·忍)’ 특성에 따라 수련을 지도하며 천천히, 느리게, 둥글게[緩·慢·圓]하는 5가지 공법이 있다. 파룬궁이



■ 1993년 베이징 동방건강박람회에서 파룬궁은 박람회 최고상인 ‘변연 과학진보상’과 대회의 ‘특별 금상’을 수상했고,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 선생께서는 ‘대중에게 환영받는 기공사’ 칭호를 받으셨다.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며 도덕적, 정신적 경지를 향상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 다양한 민족에게 사랑받고 있다. 현재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며 수련 인원은 1억 명이 넘는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전에 파룬궁은 중국에 널리 알려졌다. 1992년과 1993년 베이징 동방 건강박람회에서 파룬궁은 ‘스타 공파’로 칭송받고 많은 상을 받았다. 1996년 파룬궁의 주요 서적 《전법륜(轉法輪)》은 ‘베이징청년보’, ‘베이징석간신문’, ‘베이징일보’ 등에서 여러 차례 베스트셀러에 등재됐다.

1992년 5월 파룬궁이 전파돼 1999

년 7월 중공이 박해하기 전까지 불과 7년 만에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 수는 7천만~1억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수련 인원이 많아 당시 당수 장쩌민은 질투와 공포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 운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중국 외에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파룬궁을 수련할 수 있다. 올해 5월 13일은 파룬따파가 세상에 전파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로, 세계 1천 명이 넘는 정계인사들이 각지 수련생들에게 포상을 내리고 축하 서신을 보내 파룬따파와 리홍쯔(李洪志) 선생님이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걸출한 공헌을 했다고 찬양했다.

남편의 담관암이 낫다

[중국 라오닝성 투고] 2020년 8월, 남편이 갑자기 피부가 노랗게 변해서 시내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담관암이 막혔다고 했다.

의사는 담즙이 확산돼 오장육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으며 간, 담, 소장, 비장, 췌장 및 기타 부위가 관련될 수 있기에 수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가족은 최선을 다해 베이징 301병원 전문가를 요청해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남편은 담관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3개월 뒤 재검사 후 화학요법을 하겠다고 했고 병이 빨리 악화되기에 가능한 빨리 화학요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화학요법을 한 후 재검사한 결과 상태가 악화됐고 종양이 간문으로 전이돼 4cm까지 자랐다.

온 가족이 깊은 슬픔에 잠겼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의사는 이상할 것이 없다며 이런 종류의 병은 아주 빨리 진행되므로 몇 달, 몇십일만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했다.(나중에 우리 집 근처에 어떤 사람이 이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간 지 25일 만에 사망했다.)

의사는 치료 방안을 다시 연구하고

또 화학요법을 시작했다. 이번에 남편이 화학요법에 지쳐 침상에 누워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밥 먹고 화장실로 갈 힘도 없어 모두 내가 간호해야 했다.

이런 화학요법을 계속하면 사람이 잘못되는데 어찌면 좋을까? 온 가족이 의논한 끝에 화학요법을 하지 않고 운명에 맡기자고 했다. 의사는 화학요법을 하지 않으면 발생할 무서운 후과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치료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남편과 파룬궁 수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내가 막 말을 꺼내자 남편이 먼저 매일 9자진언(九字真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했고, 수술대에서도 염했다고 했다. 나는 매우 놀랐다. 남편이 내 파룬궁 수련을 반대해 우리는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다. 지금 어찌하여 자발적으로 ‘파룬따파하오’를 염하기 시작했을까? 그때는 박해당할까 봐 두려웠었다고 남편이 말했다.

나는 1996년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당시 온 가족이 내가 대법

을 배우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대법을 배운 후 심장병이 다 나왔다. 박해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연마하지 않아 심장병이 재발했다.

남편은 대법 책을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 둘은 매일 밤 법공부를 하며 매일 10쪽씩 읽었는데 모두 그가 소리 내 읽었다. 나는 남편에게 “대법과 사부님께 했던 나쁜 말, 나쁜 짓을 모두 폐기한다는 성명을 써야 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동의했다. 이렇게 나는 그를 대신해 정중성명을 썼고 남편이 그 위에 진지하게 서명했다. 그리고 수련생의 도움으로 정중성명을 명혜망에 보냈다.

남편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졌다. 그

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매일 9자 진언을 읽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 내 읽고 사람이 있을 때는 묵독했다.

반년이 지난 후 재검사를 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매우 놀랐다. 의사는 남편이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사가 남편에게 복부 전체 CT, 강화 CT를 했는데 기적이 나타났다. 종양이 없어졌다. 의사마저 이상하다며 필름을 살펴보면서 혼잣말로 “어디로 갔지?”라고 말했다. 현대의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올여름에 남편이 다시 검사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명혜총서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사람의 일생에서 건강은 매우 소중합니다. 현재 많은 질병에 대해 병원에서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绝处逢生)》이 책에서 우리는 각종 완고한 질병과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비참한 조우를 볼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들이 파룬궁 수련 후 절체절명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책은 천제서점(tiantibooks.org)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독자는 인터넷 봉쇄돌과 프로그램으로(뒤표지 방법 참고) 명혜망(minghui.org)에 접속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문 버전으로만 가능하며 구매 혹은 다운로드해 일독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령의 임신부가 우한폐렴 악몽에서 벗어나다

■ 글/ 캐롤린

나는 캐롤린이라고 하며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인 36살에 처음 임신했다.

임신 26주가 된 2021년 1월 12일, 우한폐렴 검사에서 나는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날 열이 점점 심해져서 때로는 이불을 한 겹 덮었는데 땀이 비 오듯 하고, 때로는 네 겹을 덮어도 여전히 추웠다. 혈중 산소 수치는 최저 94이고 심장박동은 분당 135회 정도이며, 온몸이 아프고 입맛이 없었다. 가장 큰 일은 아이의 태동을 느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매우 걱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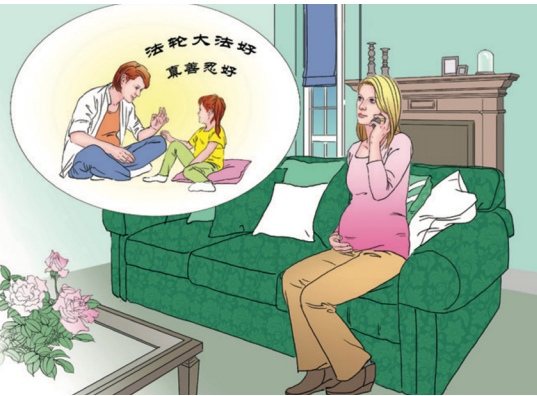


위급한 고비에서 ‘9자진언’을 성심성의껏 염하다

그날 오후 해열제를 복용하자 온몸에 땀이 났고 열도 빠르게 내렸으나 두 시간 지나자 다시 열이 올랐다. 인후통으로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이 마치 면도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고 말도 하기 어려웠다. 목구멍에는 1주일 내내 가래가 끼어 있었고 매일 24시간 계속 가래를 뱉어내야 했기에 휴지통도 티슈로 가득했다. 그 기간 늘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었다. 이전에 내게 파룬따파의 신기함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나도 시험 삼아 몇 개월 연마해봤으나 시종 그런 신기한 일을 보지 못했기에 그다지 믿지 않았다.

위급한 상황에 친구와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다. 나는 한번은 친구에게 지난 산부인과 검진 때 의사가 아이가 태위 전치인 것 같으며 언제라도 출혈이 심할 수 있고 조산할 수도 있다고 해 아주 걱정된다고 했었다. 뜻밖에도 친구



는 예전에 두 아이를 낳을 때 모두 태위 전치였지만 모두 순산했다고 했다. 이 친구는 9자진언(九字真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항상 외우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나는 매우 고무돼 그날 밤 졸곧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성심성의껏 읽으며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뱃속 아이에게 “애야, 우리 함께 이 고비를 넘기자”라고 말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도 ‘9자진언’을 외우고 있으니 지금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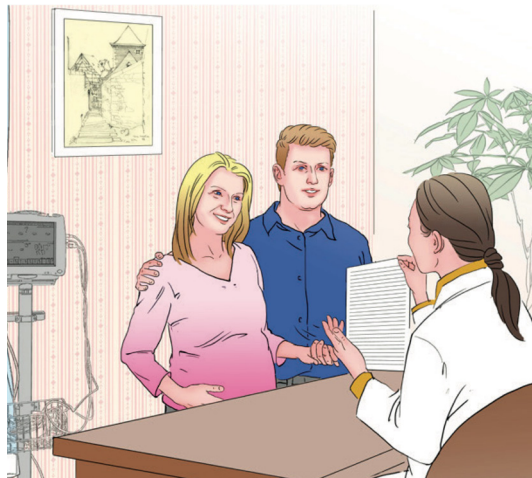
며칠 후 땀을 흘리고 난 후로 더는 열이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서서 10분간 파룬궁을 연마했다. 그 후 매일 20~30분씩 파룬궁을 연마했다. 며칠이 지나자 호흡기 증상이 기적적으로 사라지고 음식이 먹고 싶어져 체력과 정신

이 나날이 좋아졌다.

태아의 모든 것이 정상

1월 28일 핵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의사는 태아가 완전히 정상이고 태위 전치가 없어졌다고 했다. 또한 임신성 고혈압이 없고 신체 조건이 젊은 사람처럼 좋아 순산이 기대된다고 했다.

내가 이 경과를 쓸 때는 후각도 많이 회복됐다. 냄새가 이상하긴 했지만 매일매일 정확히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에게 가장 어려울 때 ‘9자진언’을 읽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우한폐렴의 고통을 받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기적이 당신에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행운으로 파룬궁 만난 유럽인, 녹내장이 깨끗이 낫다

■ 글/ 캣 파이프(Kat Piper)

쿠키 샤볼츠(Kuki Szabolcs)는 루마니아인으로 프로그래머다. 매일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인지 2003년에는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실명 직전이었다. 의사는 녹내장으로 안압이 매우 높다면서 2년 후 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의 온 가족을 압박했다. 당시 가족은 전적으로 그의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쿠키는 좋은 의사를 찾기 위해 현지 의사 10여 명을 방문했다. 또 수도 부크레슈티에 가서 의사를 만났으나 모두 허사였다.

결국 그는 서양의학 치료법에 대해 더는 희망을 품지 않고 가부좌를 하고 요가와 일부 기공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썼지만 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더욱 그는 혼란에 빠졌다.

생명의 전환점

이때 그의 한 친구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추천했다. 인터



■ 프로그래머 쿠키와 그의 딸.

넷 검색을 통해 파룬따파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의 지도원칙으로 하며 네 가지 동공(動功)과 한 가지 가부좌를 포함한 다섯 가지 공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쿠키는 속으로 이 공법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룬따파는 수련자가 도덕과 품행을 향상할 것을 요구하며 그 법리는 《전법륜(轉法輪)》 책에 체계적으로 적혀있다. 쿠키는 반복해 《전법륜》을 읽고 동시에 파룬따파 창시자 리

홍쯔(李洪志) 선생의 모든 설법을 한 권씩 읽어나갔다. 읽을수록 서서히 빠져들었다. “이 책을 읽으니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존재 원인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신에 거대한 변화 발생

리홍쯔 사부님께서는 제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진선인(真·善·忍)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며 곳곳마다 타인을 배려할 것을 요구하셨다. 수련이 깊어지면서 쿠키는 바뀌었다. “만약 자신이 하는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재삼 생각하며, 될수록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피합니다.” 그는 심성이 개변된 체험을 이야기했다.

가정에서 쿠키는 더는 아내와 다투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주변 직원들에게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는 예전에 늘 프로젝트 책임자 앞에서 자신의 기술을 과시했다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그중 쿠키에게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행복한 아버지가 된 것이다. 이전에 그는 이 세상은 폭력과 부패가 가득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고 생

각했다. 파룬궁을 배운 후 쿠키에게 딸이 태어났고 이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각종 도전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의 시력은 파룬궁 수련 후 약을 끊었으나 오히려 점차 개선됐다. 한 동안 수련 후 그의 시력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돼 컴퓨터 앞에서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즐겁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박해를 저지하다

파룬궁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쿠키는 파룬궁 진상 알리기 활동에 참여했다. “좋은 사람이 박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쿠키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발생한 파룬궁 박해가 종결되기를 바랐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왜 멀리 중국에서 발생하는 일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지 질문했다. 그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명언으로 대답했다.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합니다.” 쿠키는 보편적 가치와 기본 인권이 짓밟힐 때 사람마다 자신을 위해, 또 자손 후대를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런 작은 노력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보응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은
중공 중앙위원회 ‘610’ 두목들.



저우융강(周永康)

전 중앙 ‘610’ 영도 소
조장, 중국공산당 중앙
상임위원. 무기징역.



푸정화(傅政华)

전 중앙 ‘610’ 판공실
주임,公安부 상무부 부
부장. 사형 집행유예.



쑤리쥔(孙力军)

전 중앙 ‘610’ 판공실
부주임,公安부 부부장.
사형집행 유예.



리동성(李东生)

전 중앙 ‘610’ 판공실
주임,公安부 부부장,
징역 15년.



저우변순(周本顺)

전 중앙 ‘610’ 영도소조
부조장, 허베이성 당서
기, 징역 15년.



장웨(张越)

전 중앙 ‘610’ 영도소조
부조장, 허베이성 정치
법률위원회 서기, 징역
15년.

전 중앙 610고위직 줄줄이 옥살

■ ‘610 판공실’은 장쩌민(江泽民)의
파룬궁(法功功) 박해를 전담하는

[명혜망 종합보도] 중국 속담에 선
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말이 있다.
최근 푸정화(傅政华)·쑤리쥔(孙力
军) 전 중공 중앙위원회 ‘610 판공
실’ 정·부주임은 모두 감형 및 가석
방이 불가능한 사형 집행유예를 선
고받았다.

푸정화·쑤리쥔과 함께 왕리커(王立
科) 전 장쑤(江省)성公安청장 역시
감형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사형 집
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궁다오안(龚道
安) 전 상하이公安국장 무기징역, 덩
후이린(邓恢林) 전 충칭(重庆)시公安
국장 15년형, 류신윈(刘新云) 전 산시
公安청장이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섯 사람은 모두 중공 장쩌민
일당이자 파룬궁을 박해한 집행자로,

직 관리 이

지시로 설립된
불법 기구다.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을 수없이 죽였다. 선과 악의 인과응보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적으로 청산됨은 바로 과거에 파룬따파(法輪大法)와 좋은 사람들을 박해해 받은 업보다.

장쩌민 전 중공 당수는 파룬궁 박해를 위해 ‘헌법’과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피해 1999년 6월 10일 파룬궁 박해를 전담하는 기구인 ‘중공 중앙위원회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소조’를 설립하고 산하에 ‘610 판공실’을 설치해 파룬궁 박해를 전방위로 조직·지휘·실시하도록 명령했다. 구체적인 실시기구가 국보국(국내안전보위국) 및 국보대대여서 국보경찰을 ‘610경찰’로 부르기도 한다. 사형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쑨리쥔 전公安부 부부장이 국보 총두목이었다.

20여 년간 장쩌민은 ‘610’이라는 불법 기구를 이용하고 국보 경찰을 조종해 파룬궁 수련생들을 제멋대로 감금, 협박, 재산 강탈, 납치해 감옥, 노동수용소, 세뇌반, 구치소, 정신병원 등으로 납치해 고문, 박해, ‘전향(转化: 수련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명혜망은 중공의 엄격한 정보 봉쇄를 뚫고 파룬궁 수련생들이 고문으로 박해받은 사례를 대량 수록했으며 그 중 4000명 이상이 고문으로 사망했다. 중공에 불법 체포된 파룬궁 수련생 수는 최소 250만~300만 명이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이들은 국내에서 ‘부패’

라는 이름으로 청산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직면해 있다.

38개국 정부에 최근 박해자 명단 제출

최근 전 세계 38개국 파룬궁 수련생들이 재차 연대해 또 다른 박해자 명단을 자국 정부에 제출하고 법에 따라 악인과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동결을 요구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캐나다·호주·영국·뉴질랜드·유럽연합 23개국·한국·일본·멕시코·이스라엘 등이다.

역사를 보면 경종으로 삼을 수 있다. 고대 로마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 네 차례 큰 역병으로 멸망했으며, 중국 역사상 ‘삼무일종(三武一宗)’인 북위 태무제(北魏太武帝), 북주 무제(北周武帝), 당 무종(唐武宗), 후주 세종(后周世宗)은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아 장년(壯年)에 급사했다. 파룬궁 박해의 급선봉인 보시라이, 저우융캉, 쑤리쥔, 푸정화, 쉬차이허우(徐才厚, 재판 전 사망), 리둥성, 왕리쥔 등 중공 고위 관리들이 감옥에 갇힌 것도 박해자의 수치스러운 종말을 예고한다. 또 인간의 업보는 세인을 깨우기 위한 것일 뿐 지옥의 업보는 진짜 악업을 갚는 과정이며 자식과 자손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

8명 동시 교통사고에서 판이한 결과

[중국 투고] 우리 회사는 4천 명 직원이 있는 국영기업이다. 2000년 9월 30일 한 부경리가 직원 6명과 함께 차를 타고 시공 현장에 검수를 나갔다. 기사까지 총 8명이 탄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는 산길에서 꽤속으로 달리다가 앞에서 달리는 농가 차량과 크게 충돌했다.

기사는 다치지 않고 부경리의 허리가 끊어지다

팀을 인솔한 부경리가 조수석에 앉았는데 허리가 잘린 것처럼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돼 즉사했다. 2명의 과장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고 이튿날 새벽 4시경에 사망했다.

다른 한 명 역시 중상이었는데 두개골을 열어보니 전부 피였다. 1주일 내에 두개골을 3번이나 열어 응급 수술을 해 겨우 살아났다. 다른 한 직원은 쇄골 골절이었다.

가장 운 좋은 사람은 기사와 다른 2명인데 거의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기사와 부경리는 나란히 앉았으며 사고 당시 기사 앞가슴이 핸들에 맹렬히 부딪혀 폐가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아무렇지도 않았다. 교통경찰마저 이 기사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심한 사고에서 전혀 상처가 없다며 목숨이 길다고 했다. 사실 기사는 파룬따파(法輪大法) 책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찰과상을 입은 두 명은 대법제자에게서 진상을 들은 적이 있었다.

두개골이 3번 열린 사람과 쇄골 골절이 있던 사람은 사고 전날 수련생이 그들에게 건네준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 진상 CD를 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부경리는 현장에서 즉사했는데 그는 생전에 중공 거짓말에 심한 독해를 입어 파룬궁을 극력으로 반대했으며 또 대법에 불경한 말을 많이 했다. 사망한 과장 두 명 역시 중공 거짓말을 믿어 대법을 비방했다. 그들의 결

과는 매우 비참하다.

보위과 과장 부부가 화(禍)를 피하다

또 언급할 만한 일은 당시 회사 보위과장이 진상을 알게 된 후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해 심장병이 나왔으며 또 이번 큰 재난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 이 보위과장은 사고가 발생한 차에 편승하려 했으나 차에 탄 후 누구도 그와 응대하지 않았고 차도 출발하지 않았다. 보위과장은 매우 화가 나서 자신의 짐을 들고 내리자 차가 즉시 출발했다.

이 보위과장은 또 아내에게 현장에서 이 차를 타고 회사에 복귀하라고 했으나 그의 아내도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보이지 않아 타지 못했다.

사고 발생 후 그의 아내는 파룬궁 수련생 손을 잡고 격동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 대법 사부님께서 보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보위과장인 아버지가 대법을 선하게 대하자 아들도 따라서 복을 받았다. 원래 보위과장 아들의 성적은 보통이었는데 나중에 순조롭게 대학에 합격했다.

이 일을 통해 회사의 많은 직원이 파룬궁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생겼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가뭄과 억울한 옥살이

《두아원》의 계시

글/ 청관(淸川), 리밍(黎明)

2022년 중국에는 60년 만에 가장 큰 가뭄이 들었다. 현대인은 흔히 기후 변화, 온실 효과로 고온 날씨를 설명한다. 하지만 중국 전통문화는 ‘천인감응(天人感應)’,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얘기하면서 매년 극한의 날씨나 극심한 가뭄이 나타나면 모두 천상의 경고로 간주했다. 가뭄에 관해 우리 먼저 중국 원나라 때 《두아원(婁娥冤)》 이야기를 보도록 하자.

두아(婁娥)가 억울하게 죽자 3년 동안 초주(楚州)에 큰 가뭄이 들다

두아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 두천장(婁天章)은 가난한 수재였다. 두천장은 과거시험을 보러 갈 여비가 없어 과부 채 씨에게서 고리대금을 빌렸고, 두아는 부득이 채 씨의 민며느리가 됐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 남편이 세상 뜬 두아는 채 씨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러다가 현지 불량배 장려아(張驴兒) 부자가 우연히 채 씨 목숨을 구해주었고, 그

기회를 틈타 그들은 채 씨 집에 들어와 살았다. 그들 부자는 각각 두아와 채 씨에게 결혼하자고 협박했지만 두아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두아를 차지하기 위해 장려아는 채 씨를 독살하려고 했다가 일이 틀어져 자기 아버지를 독살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장려아는 관청에 가서 두아가 사람을 죽였다고 무고(誣告)했고, 어리석고 무능한 태수는 두아와 채 씨에게 고문을 가했다. 시어머니가 고문당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한 두아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거짓 자백했다.

사형 집행일에 두아는 하늘만이 그녀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면서 감관관(監斬官)에게 기창(旗槍)에 일장 이척(一丈二尺) 되는 흰 비단 띠를 걸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다음 하늘을 향해 만약 자신이 정말 억울하다면 죽은 후 피가 흰 비단에 튀고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6월에 눈이 석 자 내려 그녀 시체를 덮어줄 것이며, 초주는 3년간 큰 가뭄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두아 머리가 땅에 떨어질 때 그녀의 두 맹세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두아의 뜨거운 피는 온통 흰 비단에 튀었고 땅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원래는 무더운 6월 날씨였지만 삼시간에 찬바람이 불고 큰 눈이 날리기 시작하면서 하얀 눈이 두아의 시체를 가렸다. 효부 두아가 죽은 후 초주는 정말 3년간 큰 가뭄이 들어 곡식을 한 톨도 거두지 못했다. 현지 백성들은 이걸 하늘이 두아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임을 모두 알게 됐다.

서한 대문학가 동중서(董仲舒)의 ‘천인감응’설에서는 자연재해와 세상일은 대응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큰 가뭄이 생기면 군왕에서 조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먼저 형사소송에서 억울한 사건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생각했다. 그리하여 사건을 재심하고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으며 누명을 벗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기록은 중국 정통 역사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늘에는 눈이 있어 불의의 재난이 없다

다시 두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녀 아버지는 이후에 과거에 급제해 고관이 되었으며 고향에 돌아가 친척들을 찾아 뵙고 두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잇달아 두아의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다. “우리는 일찌감치 두아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탐관의 권세가 두려워 화만 낼 뿐 감히 얘기를 못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아를 해친 것도 아닌데 왜 3년간 가뭄의 고생을 겪어야 하나요?”

두아 아버지가 말했다. “당신들은 두아가 억울하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감히 공정한 말을 못 했으니 이걸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탐관을 믿고 두아가 정말 사람을 죽였다고 여기면서 착한 사람을 모함했는데 이걸 몰인정한 것입니다. 하늘에는 눈이 있어 불의의 재난이 없는바, 천재지변은 바로 몰인정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두아의 이야기는 후세에 깨달음을 남겨준다.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견지하며, 악을 배척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일을 듣거나 맞닥뜨렸을 때의 반응, 머릿속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선과 악에 대한 당신의 선택이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건은 바로 20여 년간 지속된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다. 파룬궁은 불가(佛家) 수련대법으로, 부처수련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 박해받고 있어 신불(神佛)께서도 진노하고 계신다. 최근 몇 년간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자연재해와 인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것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해 초래한 천벌이 아니겠는가?

다행히 지금 4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고 중국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는데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아이가 당에 말려들지 않게 하겠다”

지금 공안, 검찰, 사법인원들 중에는 진상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의 한 수사대장은 해외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 진상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 수련생은 말했다. “당신이 공산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당기에 맹세를 하셨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에 목숨을 맡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당신이 가입했을 때는 단지 좋은 앞날을 갖고 싶었을 뿐이지만, 이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면 당신은 하실 겁니까? 당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이 사악한 조직에서 탈퇴하

세요.”

수사대장은 듣고 흔쾌히 탈당에 동의했다. 그는 세 자녀 모두 입당할 수 있지만 입당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저는 공산당을 일찍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당에 말려들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파출소장이 파룬궁 제자를 잘 대하다

중국 한 지역에서 노인 파룬궁 수련생 몇 명이 시장에서 진상을 알리다 사복 경찰에게 납치돼 현지 파출소에



2022년 10월 9일까지 해외 탈당 사이트에
서 ‘삼퇴’(탈당·탈단·탈대)를 선언한 사람이
4억300만 명이 넘었다.

삼퇴 방법: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탈당 사이트 (Tuidang.org)
에 접속 후 진심으로 탈퇴한다. 실명, 가명, 애명 모두
가능하다.



■ 2022년 8월 21일, 호주 퍼스에서 4억이 넘는 사람들이 삼퇴(중국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를 축하하는 집회를 열었다.

납치됐다. 다음 날 아침, 파룬궁 수련생들이 파출소장을 찾아가 이 일을 물었다. 소장은 “어젯밤 그녀들을 석방했습니다”라며 허허 웃었다.

이 소장은 40여 세다. 그는 해외와 현지 파룬궁 제자들이 진상을 알려줬다며 말했다. “파출소에서 몰수해 온 각종 파룬궁 진상자료를 틈틈이 꺼내 보았어요. 그래서 파룬궁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으니 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해도 상관하지 않았지요. 어제 사복을 입은 ‘610’ 인원이 할머니 네 명을 파출소로 납치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저는 ‘610’에 전화를 걸어 이 할머니들의 태도가 매우 좋은데다가 이미 70

세가 넘었으니 집에 돌려보내자고 했습니다.”

소장은 이어서 말했다. “여기 큰 장날 이면 많은 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며 삼퇴를 시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날 길가에 서서 ‘9평 공산당’과 진상달력, 파룬궁 전단지, 정기간행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한 사람이 파출소에 신고해도 우리는 대강 넘어갑니다.”

이 소장은 파룬궁 수련생을 잘 대우해 현지인들에게 진상을 알 기회를 주어 이 지역 민중에게 복을 가져다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손들에게도 복과 공덕을 쌓았다.



방대한 진영, 일치된 연주, 아름다운 악곡, 독특한 당나라 의상의 천국악단은 해외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각 지역 파룬궁 수련생으로 구성된 천국악단은 현지의 각종 대형 활동에 초대돼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사진은 2022년 10월 9일 미국 서부 천국악단이 샌프란시스코 연례 이탈리아 전통 퍼레이드에 초대돼 주최측과 시민들의 찬사와 환영을 받는 모습.

◇ 삼퇴 방법 ◇

1. 한국 내 무료 삼퇴 전화: 010-3906-3366 혹은 010-5381-5957
2. 글로벌 탈당 홈페이지 tuidang.org 접속
3. 파룬궁 수련생을 찾거나 탈당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삼퇴할 수 있다.
(삼퇴는 익명으로 가능하기에 중국에 왕래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